

러 전지를 전하 고하 써를 잡아 가려 하 니 도가에서 경황 실척 하야 하 나 할릴 업서 니 여 주니 차관이 압영 하야 가는 지라도 관광 제 경히 함을 마지 아니 하 더 라 어 시에 진상 서 형 부에 서 형 별의 구를 버리고 랑관을 청하야 모도 니 도시 랑이 랑관으로 잇 난지 라 진 짓이 목을 만 히 하야 교 주를 을 여 미 고 엄형 할 식 운 환이 헛드 리 지 고 옥 빈이 산 하야 옥 모 교 티스 랑의 이 목을 놀 니 니 가 위 경 국 지 석 이 러 라 렬 좌 제 공이 참 아 보 지 못 하 되 홀 노 진 상 서 한 번 보 미 옛일이 요 연 하야 하 시 죽 음을 생각 하 니 저 음 녀의 밭 되 라 평 성 절 치 부 심 하 더 니 이 제 조 기 손에 다 사 리 게 된 지 라 위 분을 크게 말 작 하야 극 형 엄 문 왈 음 악 츠 녀 야 네 능히 날 를 알 손 나 나 난 곳 네 집 문 하 격 이 라 오 날 하 네 죄 를 일 오 나 니 드 르 라 네 당 하 한 상 문 교 주 로 형 과 슈 밍 한 문 하 격 을 엿 보 와 음 모 를 스 모 하야 음 심 이 티 밭 하야 니 혼 야 에 디 취 할 셔 를 라 네 시 년 체 하 고 간 악 한 티 도 로 공 교 로 온 말 을 써 날 를 속 이 니 니 아 지 못 하 고 음 녀의 간 홀 한 계 교 에 쟁 저 더 러 음 이 실 노 썩 지 못 하 고 붓 그 러 음 이 라 네 비 록 음 흥 을 참 지 못 하야 외 격 을 잠 등 한 들 엿 저 동 의 흥 을 하야 니 게 이 간 코 조 하 든 다 니 비 록 녀 의 흥 한 계 교 를 모 로 나 니 곳 셔 너 를 잠 간 동 간 함 이 불 안 하야 물 이 치 니 네 도 로 혀 날 를 원 망 하야 죽 일 썩 슬 두 고 날 를 모 히 함 이 만 고 의 간 악 흥 녀 들 장 근 반 년 을 천 압 하 다 가 흥 피 한 녀 의 오 라 비 와 네 어 미 로 더 부 러 등 모 하야 날 를 박 살 할 의 스 를 니 든 거 시 이 제 연 연 이 지 상 의 며 나 리 와 명 스 의 안 히 되 야 그 런 붓 그 러 음 을 모 로 니 이 진 짓 강 상 죄 인 이 라 네 흥 모 하 든 일 를 네 형 이 듯 고 니 게 등 하야 도 피 하 앓 다 가 타 일 공 명 을 엿 는 날 네 집 환 는 을 구 하 라 하 더 니 오 날 하 네 오 라 비 니 손 에 형 추

하 고 네 또 한 니 손 에 드 려 스 니 엿 지 런 리 소 소 치 아 니 라 여 등 의 죄 악 은 실 노 만 스 무 셔 이 오 나 오 작 하 공 을 위 하야 원 동 이 너 기 나 니 네 형 이 니 슈 함 은 널 노 말 미 암 은 연 괴 라 네 죄 악 이 런 디 에 관 영 처 아 니 라 이 러 무 로 니 이 제 황 명 을 밧 드 러 녀 의 악 을 들 쳐 풍 화 를 밧 히 고 네 형 의 원 스 혼 원 슈 를 갑 하 주 라 하 나 니 네 형 이 엿 지 하야 죽 엿 스 며 비 화 는 무 삼 일 노 한 번 나 야 간 후 우 금 삼 년 이 되 도 록 드 러 오 지 아 니 한 다 하 더 노 이 제 제 하야 어 린 듯 하 다 가 놀 나 되 기 를 면 하 라 교 주 듯 기 를 다 하 미 정 신 이 아 득 하 고 심 혼 이 비 월 하야 어 린 듯 하 다 가 놀 나 눈 을 혼 번 들 미 이 는 진 짓 전 일 유 정 하 든 진 성 이 라 상 혼 락 담 하야 이 에 나 야 가 체 음 의 결 왈 첩 이 죄 를 다 아 나 니 벌 건 된 잔 명 을 사 로 심 을 바 라 나 이 다 진 상 서 눈 을 부 름 쓰 고 셔 지 쥘 왈 네 하 면 목 으 로 눈 를 향 하야 살 기 를 비 는 다 니 장 츠 너 를 할 갈 에 맞 치 고 조 하 나 니 밭 이 직 초 하야 검 하 경 혼 니 되 지 말 라 하 고 또 형 장 을 직 축 하 는 지 라 죄 우 라 졸 이 일 시 에 다 라 드 러 구 형 을 더 으며 옥 뷔 썩 쳐 지 고 연 한 써 셔 야 저 피 록 이 산 산 하 니 견 지 아 니 칩 은 이 여 기 리 업 더 라 제 비 록 티 간 티 악 인 들 엿 지 이 과 여 견 티 리 오 이 에 직 고 왈 당 초 에 과 연 니 상 공 풍 모 를 흠 모 하야 니 두 사 를 생각 지 아 니 하 고 감 히 상 공 을 속 여 비 록 로 스 동 하 고 형 을 잡아 상 공 게 이 간 하 온 후 로 첩 의 우 미 한 소 견 이 상 공 게 잇 습 는 고 로 부 득 이 형 을 죽 여 업 시 혼 후 인 연 을 일 우 고 조 하야 상 공 게 시 험 한 주 상 공 이 쥘 절 이 물 이 칠 분 아 니 라 사 단 이 만 약 밭 각 곳 될 진 딤 첩 의 아 비 첩 을 죽 여 도 못 칠 썩 히 업 게 하 실 지 라 이 러 무 로 도 로 혀 상 공 을 히 할 썩 슬 니 여 멸 구 코 저 하야 첩 의 어 미 와 동 성 으 로 더 부 러 상 의 하야 상 공 을 모 히 하야 가 천 게 참 소 하

고또한박살하려하음은동화의 계교라가친이신청하스가형으로하야금상공을죽이고
 즈하니상공이님의다라났는지라할일업셔누설한죄형의게로도라가미부친이형을불
 너못조온죽형의말이여쳐여쳐디답하고허를써무러피를도하며정신을일허인스를모
 로오미오허려형이살면도로혀첩의게화근이될가하야즈레죽이고즈하더니여쳐여쳐
 한글를써뵈오고그날밤에후원연못제싸져죽고양유목에혈서를써스니이느스스로죽
 음이오또한빅화는조모와삼형이모의하야업시코즈하더니제스스로알고형의시녀옥
 미홍년과시동명션으로더부러모일에도주하야스니이느첩의알비아니라아비의심에
 아등모조형제의게도와자와자못면목불견하시고삼형으로도불상동하야공명을
 금지하시되삼형이던의를밀막고조금도듯지아니하니가친이또한세럼이업셔유람하
 노라일갈고나가더니이제삼년이되얏는지라지우금부지거쳐하고기간또무삼일잇삼
 논지아지못하니이다진상셔이에초스를낫낫치기룩하야맞고다시나리와가들씩그형
 상이참혹하고측은함을참아사람이보지못할너라공부상셔도현이갈오딘군은밝은인
 정이라하리로다초녀디음디악이이에이르되엇지저디도록괴악하리오우리는과연저
 려피악음년졸은아지못하얏제라진상셔우으며갈오디공은미식을사랑하야죽일가앗
 기는도다하고이에초스를올이고쳐쳐하시기를기다리더니잇씩던조초스를보시고불
 승경히하스이에오십장을더쳐관비정속으로나리오라하시니진상셔오허려죽이지못
 할을한하나다시청치못하더라진상셔공인을발하야하시분묘에비를세울시전지를받

드러이에효열비라하시고필역하미상셔지전향축을갓초오고친히제문지어제하니그
 제문에하얏스되

모년월일에시랑겸티학스진제벽은만심설화로써효열비하씨영위에고하나니성이
 그티로더부러언약한비광풍에락화로다군의의기출어범류하고성조광년과효열덕
 형이고즈성녀에비길비로티시절을그릇만나형극중난국갓호며중년소시에비명원
 스하니초호셔제라범연한남조라도감읍하려던하물며슈은슈약한진제벽이야성이
 복이박하야숙녀로더부러길이기도모치못하도다오호이제라던되현인을복지못하심
 이에에밋츠스원역함을참기어렵도다성이당년도주할신절에금일황분일중에지전
 을살오미비하야는제스를는척이로다오호의지며오호동제라원중도작의쇼리라고
 을위하야는기는듯비풍이삽고하야만산초목이다슬푸물씩엿스니영혼이는기는듯
 군의소식을도라무를고지업도다군의홍안월티와봉음는성이이변에정영하되향흔
 니묘망하야넛스람이되도다성이전성애죄중하야도실부모하고일신이무의하야타
 향에표령하더니형이영디인의거두심을남어실하에의지함이되야또군으로더부러
 빅년가기를언약하얏스니은혜망극하나한하는바는천스를일직일횃든들오늘날이
 잇스랴군의충미흔타시며음악간인의작회함이되니누도호혀흥게잇슬줄뜻하얏스
 리오년소풍딩에일시유희로미오허려군의명을맞는근원이되도다간이니충창하야
 들를기창에함의하야못철썩이업더니군의은혜로되화를버셔났도다성이함게피화

기를 권하되 군이 맛참디외로 거절하니 그 말이 비록 디외에 가하나 죽을 지경에 이를 줄
아랏스리 오군이 하나 혼절을 완전이 하고 들은 부형을 건지려 하며 세 혼간당의 전두홍
계를 두려 굿차코 욱됨을 보지 아니려고 집이 지쳐하니 덩고 절은 송죽을 나 모라고 출
던 티효는 고인에 견도 미붓그럽지 아니하다 군의 지휘를 좃차 칭이 한번 존됨을 써나 산
문에 몸을 붓치다가 이제 다행이 룡루에 근시할야 작위 경상에 너르니 이는다 군의 준비
로 다 일신은 영귀하나 칭을 구하든 지최는 유명간길이다 르니 엇지 늦기 지 아니하리오
군의 집참화는 칭각할진된실노한심하니 주실에 관치잇슴갓도 다 군이 당년에 금일 지
화를 근심하야 령디인과 령제를 부락하니 그 명감이 과년 신명갓도 다 군의 팔체는 오히
려칭의 게머 무렷슴미시시로 반기오나 홀노군의 옥성화안은 반길길이 업도 다 칭이 금
일군의 집참화를 보오미마음이 바아 지는 듯하되 만일 스스를 행할진된이는 국법을 어
그릇침이니 어러 무로 삼간을 정형하고 다시 금스정으로 글을 올여던은으로 써 령디인
령제를 보전하고 군의 효우로 써 음녀보유하기를 절겨아너 모로 지아니 되군의 비명참
스와나 의 호연을 뜻치문교 주음녀의 작열이라 그 원슈 겁지아니며 그 죄악이런디간
에가득하야 일각이라 도제상에 두지 못할지라 어러 무로 정기 죄하야 고고 칭이 군의
은혜와 절의를 갑홀길이 업서던은으로 묘하에 정표하야 효절을 낫타니고 다시 비를 세
우며 그분묘를 슈호하야 사시 향화를 사시 불멸하리니 군의 유평은 쇼감함이 잇슬가오
호통지며 오호척지라 비록던하를 두로 도라도 군의 지최를 다시 불슈업고 군의 은혜를

갑홀길이 업스니 나의 간담을 타아 모리 덩성을 다한들 속절업슨허스도 홀노군의 절
염풍광을 어디가셔다시 보며 냥선정논을 엇지 써다시 드르리오 만일 군을 다시 불괴약
이 잇슬진된서신이 달기를 면하리오 비록 유명이 길이다 르나 나의 신심이 가히 괴외와
미성되기를 감심할거서로 되시러 금베꽃지업도 다 초호척지며 이저라 칭이 능이 군
을 좃추지 못한후난 인륜을 잇지 못할거시니 가히 속녀를 님의로 감회여 비년동락이
관々하미의 구한즉칭의 마음이 엇지하리오 슬푸다 군의 아람다온고 혼을 누게의 지할
고칭이 비록 룡례난갓초지 못하얏스나 슈빙정절한정실로 피초의 덩과 신이 겁혀심상
치아난지라 모로 미사칭간셔로 좃추연연이나 의분향을 바드라 칭이 비록 장안즈벽의
속녀현질을 구하나 군과 갓은 성념현녀 쏘어 디잇스리 오비록 금지의 락을 일을 자라도
은혜와 다 못의 절이 밋지 못할거시오 주림과 섯봉오리 만흐나 과람화아리 섯처로 다 칭
이지원극통으로 여츠슬품은 종신도 록불변하리니 중심의 명세하야 가만이 원하난바
는 당々이 스후 혼백이 구련의 도라가셔로 섯라 놀기를 어들가하야 일노 좃차 위로 하노
라 말은 궁하나 섯존무한도 다 일비주와 초々한글노 쏘무류한고 혼을 위로하노라 다만
비회교집하고 심신이 창황하야의 사상막하미언어 도착하고 문스번졸하니 오히려 덩
을 다 못하고 다시 어러 하직을 고하나 명명은 모로 미이 청작을 흘향하고 칭의 글을 살
피유감하소서 뇌기를 맞치미 일장을 슬피 통곡하니 성음이 쳐 절하고 만항루 옷깃슬잠
기니 슬픈정이 무궁하나 체모를 도라보와 심분강잉하야 굿치노라 하얏더라

독을제과에 도라을식다 시금도라보와 지지년년하다가 본부의 이르러 두로살피보니 평
 장한광각이 황락하고 뇌의적막하야 경식이 참담하니 심스가 장비척하야 이에 영수당을
 츠저드러갈식살피보니 유함옥눈에 옥인의 필적이 가득할뿐이 오금단수호긴긴이 닷쳐
 잇고 방중이 황연쳐량하야 금병수장파빅옥셔안이 며 황금경덕에 진이가 득하니 슬푸며
 늦기물이 고지 못하야 년화를 썩거 손에 쥐고 바라보며 초창읍하더니 다시 양유목에 이별
 시를 쓴거슬보니 사의 간절하고 처량하며 필치 찬란한 황하니 상셔 축척 감창이 오거 안비
 절이라 진소 위옥용이 적막누는 간하니 도츄져 부릉거러라이에 좌우를 도라보니 무비
 감창이라 속절업고 할릴업다다 시일 팔청려로 슈기 추종을 다리고 문을 나바로도한림을
 차지니 잇셔 묘가에 셔 불의 지변을 만나 하가를 등분하야 한림에 오리나 지안났더니 상셔
 의와 초짐을 듯고 나와 마즈 좌정 후진상셔 문왈 형이 엿지 오리 두문하 고나 지아니 하노
 하거 날 맛참 유별 현고 잇슴으로 일부러와 차지니 심이 감스하도다 상셔 침음 양구에 소
 왈 소제형으로 더부러 고도 겁거 날 금번 일을 몸소 다스리고 또이 갖치형의 가늌를 요란케
 하니 반다시 학성을 유감이 청원하리로다 연이나 일성을 조히하야 음녀를 아조절제함이
 도로혀 은혜로 아라 모로 미키 최치말고 고문디가 에 속녀를 취하야 백년금실을 쾌히하리
 니 교도는 변할 비아니라 원컨디 형은 거리 세지 말고 장부의 종신디스를 과상치 말나 도의
 현이 청과에 공경디 왈 하관이 명되고 구하와 음녀를 만나 세상에 업는 피룬 곡경을 지니 오
 니 스스 로 불명하 고 더러움지 아니 리 오거 두할 길 이 업삽거던 엿지 형을 원하 며 또 혼상 관

을 유감하리 잇고 이 렷듯하 시나 하관이 엿지 과화하리 오여 차 조롱하 시나 노상셔 황연이
 웃고 호언으로 화과 지약하더니 라이에 술을 나와 종일 연음하다가 알피느 지미 각々도라 오
 니 일노 좃차 교도 밀밀하더니 각설하공즈 감유양가에 잇셔 문석으로 더부러 침식은 편안
 하나 가향소식을 아지 못하야 이에 명선으로 하야 금경스에 보니 여담재하야 오라하얏더
 니 명선이 도라와 회보하되 공의 출유하얏슴을 고하니 성이 이에 유인을 하직하야 왈 성이
 본디 유림을 질겨하더니 이제 추석이 빗나고 금풍이 화창흔 중격의 심스를 돕난지라 잠간
 출유하야 저기 소창하 고기 한에 도라올거시니 유인은 의려치 마르소서 하 고이에 흥년을
 미등을 머무러두고 명선으로 더부러 필마로 모라 형하야 명산승디를 두로도라 승경을 유
 람하야 지과를 소창하며 방방곡곡이 부공의 종적을 심방하되 맛참 닉형영이 업난지라 남
 의 반년을 두로도라 다나 되맛나지 못하 고 문득 도라올과 한이 지나고 삼동풍설을 당하미
 능히 이기여 한절에 단나지 못할지라 할릴업셔 악연차탄하 고 저도라올셔이 연망 단하
 야 체읍왈 하날이 날을 죽게하 시는 도다 명선이 위로하야 양부로 도라오나 낭공이 깃거하
 고 문석이 또한 반겨하 더라 성이 이후로 학문을 부지런나하 고 문석을 지성으로 교훈하며
 양공을 향한 성이 부즈 갖차하니 양공이 또한 디 회하야 명의 부즈 갖더라 이르우러이 회
 진하 고 명년이 되니 성이가 스를 생각하미 심희만 단이라 일일은 춘풍을 셔야 화류를 완상
 하며 후원송죽림가 허셔 비회하더니 홀연 디 원문이 열이 난 곳에 열기 선낭이 흥군 취삼으
 로 묘연나와 추파를 흘너 원근을 관망하 고 인적이 업슴으로 방심하 고 주리를 쓰을고 섬

섬옥슈로 향화를 손에 들고 못가히나르려 문득 연화를 굵어 보더니 옥취머리로 좃추서
 물에 떠러지니 그 미인이 경동향야 몸을 굵혀만 지려다가 손을 헛잡혀 슈심에 써서 점점
 깎히드러가난지라 좌우를 살펴보니 인척은 업고 장추위 굵는더니 아씨 성이 림중에 써서
 라보니 그 미인의 용안이 화월갓고 무한한 덕성이외 모에 현져 향야 요려지절과 천양지석
 이진짓월궁선의라 년과 십여세 난향야 비나 성이 심하에 청천경후월나의 망막에 자석에
 일세에 독보할가 향앗더니 아제이 여종의 화용월리를 보니 금세에 업스리로 다향며이
 듯총찬향기를마지안향며 또한 생각에 누웠치고 자착향야 왈니 부모를 비반고 일세에
 죄인이라 남의 규슈를 류련향야 마음에 두미 군자의되아나라 향고 도라오고 조향다나그
 미인이 물에 점점드러감을보고 덕경향야 및쳐선후를도라보자야나 향고 굵나야가 손
 을드러그미인을 건지려향나 그 소제비 록죽게되앗스나와 간남조라 문득놀나 굵히물어
 치고조고마한나 무썩리를안고 센물결에 점점 깎히드러가니 성이 스체를도라보자야나
 향고우김질노원비를느리워소저를안고 쓰어녀노흐니 처상이다저젗난지라 성이 비
 로소물너셔며 읍향야 왈소저난취시완덕이 갓튼 망연한거조를향시나보그소저져슈비
 척향나 성이이런향야나야가 운환을고르고저진옥빈를거두치나 비설비상에 단스일점
 이표표한지라 소저심히놀나 굵히떨치거날 성이 송연향야 정석스외왈소성이 감히 무례
 코조함이아니라 소저의 유충함을방심함이라 슈연이나 방년이얼마되나 노남녀례의지
 엄향나 성인도 권도를두시니 소저의 위급함을보고 구차야니면인심이아니라이난조연

지스르디 만히네의에 구의함이라 소저난죄를스향소저잇씩소저만안참과향야 흥안후
 협에 주루이음차니 식로이절미한티도 롱년화도로를먹음은듯 풍영외락향고이런저절
 향나 성은맛참니연소남이라이예 성이이런권향야 강잉소왈소저주공의 룬녀시나잇
 가소저더욱참괴무언이라

第七回

梁小姐 嫂幣交換 天緣昭在
 河義之 廷尉就 囚皇恩特赦

향소저가빙페를셔로맛고오니하날연분이쇼저향고
 하희지가영위에갓치니향은으로록별이노오시다

소저옷을떨쳐드러가니 성이 무류향야 밧그로나아오나 심중에 연연함을마지아니향더
 니양공이니당으로셔나와사식이불떨향나 성이이러마조좌정함이공이바야흐로못고
 왈그덕이아하급함을구한은혜김도다 성이비로소사왈맛참화를구경코조원림에드
 러갓다가 소저의급함을구향나례절의구의함을참괴향야향더니이갓치이르시니더욱
 붓그리나이다양공왈어린것이망영도이위티함을만났스니그덕보고구치아니면이난
 사랑지심이니인조의도아니오이난나의필네라이제나히십오제로덕규중성향이탈속
 향야아람다오니니가장사랑향야부티옥인군조를갈회여저의그질을져바리지마조향
 더니던도유의향스그덕손의건진비되고제뜻시구더타문남조의게손을잡혔스니례의
 문허젗난지라죽어도타문을싱각지아닛노라향나아희비룩어리나집심형도고안을
 쓰로니보모라도님의로못향나니져뜻티로향려이와당초에그덕를유의향야사랑향나
 의심되야결치못향더니진실노던연이니엇지향리오녀이나허어리나날향야성례향리
 라성이단순에빅옥이현출향야미미허우셔왈소성이우연이남의급함을구향앗스니이

무심한가온디저근혐의로타스를결항리잇고소성이자금유방량야빅면셔싱을두
 저용이영녀로불급당이랄알호나불합호면영녀의일성이그릇될거시니삼가소서공
 이소왕군은소처말나너실노그디차조를부족히녀기미아나라그형적울의삼항거니와
 녀아의집심이철석갓트니다시두말를항리오그딤난의려치말나성이제숨스양항더
 라이후로주인의디접이더옥관곡항나성이옥미다려이스연을이른디제네크게깃거속
 히성례코즈항거날성이탄알그녀즈난실노아람다오나너비부죄인이라엇지블고이취
 항리오부즈단취한후성례항리나제청항야도너락스항리라항더러구려슈년이되
 미도정에디변이이러나그집이멸항고부첸과아오다라났스미팔도에방북쳐물척한다
 항거날성이놀나명선으로써두로즈셔아못고관문에가방을벗겨다보니과연제집일이
 오자그부즈를찾는지라성이던디망극항야명선으로상의왈일이이에밋쳐스니로야반
 다시도명을쫓차법에나가사리나아제즈현차아나셔도추심항는디버셔나저못항시
 리나너엇지홀노물나잇스리오죽기를그음항고두로차즈부즈한가지로나아가스성을
 결항리라항며또한주인의게바로고항리라항고이에양공면전에나가바야호르제근
 본을즈셔이이르고가환이잇기로랄신항야나와잇더니이제변을드르니이제로나아가
 부공을차즈사성을한가지로항고즈항읍나나이제노아조영결이로소이다항니양공이
 디경차악항야왕군의가환도망극항려나와아녀를엇지항나노성이왈적독지화를맛
 나부즈스성에잇스니어너결을에령녀를실각항리잇고이제작별할도령스소서를위함

이라학성이이제스성양니에바를거시업스니령소서로더부러흔셔빙치를안히고물에
 건지물인항야혐의를삼으나이노소소곡절이라엇지성을거릿세미잇스리오추호도의
 러치마르시고타문에현량을갈호여인륜을완전항소서성은차성에사성을모로오니미
 들거시업나이다양공이악연락담왈이엇진말고너령아는들지오그디정경이참항도다
 연나나녀아심상치아나니결단코그딤간후엇지될줄모로나가히일너제결단을드른후
 발항함이늦지아나리니잠간기다라항고드러가말를소서다려너르고키유항되모
 다차악실식항고소저는다만널오디비록흔데기물은업스나물에건진후제나을유의항
 고소녀허심함이정녕항야님의두어히에절을집히직히문남이다아나나엇지흔셔에더
 음이아나리오군즈일언은천년불키오절기느너즈지형이니너평성넘은절너편과일성
 슈형을일조에문히바리리오한번가미후회망극이라사성을미결항나가기전셔로보고
 슈약을기히하야사성에변치아나리니죽음은너스오실절은누덕이라밍제코마음을얻
 치지아나리니한번저를보게항소서항고스스로이러나니부모형제할릴업셔공이다리
 고나와성을블시성이아득항야안잣더니공이먼저나와령아의나음을일으니성이연망
 이이러나마즈레필죄정후성이염슬스왕이왕지스는창졸무심지사라말도일넛스나흔
 셔납페업스니피차엇지혐의잇스며소서빙옥신상에방히로움이리오성이은던하죄인이
 라사라도바리며소소혐의를거리세여인륜디의를폐항리오홍안심삼에하상지원을풍
 어학발준당에블호를셋치리오만만불가항니조금도기회치마르시고놈흔가문에어진

군자를 섬겨 종신되 스를 그릇하게 마르소서 소제쌍미 추픽가늘고 옥면에 홍광이 취지
야 침음양구에 정석되 좌하야 왈군이 실노침을 더하야 엇지 말을 하시라 날을 건질 제 무심
이건저도 오히려 죽하거든 말과 과식을 오히려 역역히 괴역하나군이 유의하교침이
또한 할릴 업서 비록 붓그리고로 하야 말을 하얏스나 제마지 못하야 허신하교도와 부모
게알외고서로 언약둔지양년이 어날이 제말을 곳치니 군자의 할비아나라 평안한셔마음
을 위리한셔 변함은 이는 인면슈심이라 다향당한스 부규너로군의 마음에 거리심이 되어
신상명절을 더럽게 하리오군은 넷글을 넘어 넷일을 알거시어 날감히나를 더하야 비법지
언을 하시나노침을 가장더럽게 너기심이로다 너명과 몸을 앗겨 바로 정욕을 당하리오군
이이에화를 만나 스싱양디에 후회가 모연하니 피차연분니 닳쳤는지라 맛참너 나출서로
보고군의 성명을 아라 일싱의 락을 삼고 조하야 당돌이나와나니 한결를 말고 성명을 셋차
소서 설파에 안식이 다향담하교말삼이 격절하야 추상 다향이 오벽련상월에 처운을 헛친듯
침녕 단목한위의 너중군조라 싱이 송연감동하야 할말이 업는지라 정이 조괴타시 되어져
의 일싱을 맛쳐준지라 처년반향에 악연탄식왈이를 장조 엇지 하리오싱이 소저향한덩이
허로 홀이 아니로되 나의 일언에 일싱을 판단함이 참아 박절하야 슈속여 정함이 러니 소저
의고의 여차하시니 싱이 더욱 죄무궁하도다 만일 일단너운이잇스즉 너 엇지 소저를 위하
야 덩성이 엇지 죄신이 두러 짐을 면하리오이 일은 능히 미들거시 업스니 한갓 소저의 평싱
을 맛칠뿐이라 덩을 받되 길이 업도다 당년유의 함은 다만 너근본이 미천한즉 엇지 감히외

람한의 스를 쓰리오나는 진실로 문무상적하교 피차결혼이 욱됨이 업는지라고로 소저의
금옥갓든자 품과련향국석을 흠모하야례의 구이함을 알되 당돌이 소저를 천압하야셔로
직히 여씨를 만나 인륜을 일우고 살가바라더니 이화는 실로 몽상지화라 엇지 참연치아니
리오싱이 녀시미성지인으로 성덩이 소졸하교심스 호활치 못하야 년장심스에 남너지 덩
을 모로고 죽음이 가련하되이 본디 제 죄어니와 소저는 무삼죄로 일싱을 헛도이 맛치리오
너반다시 스싱간에련양을 면치 못하리오다 인하야 양공을 더하야 왈이를 장차 엇지 하리
오명공은 원컨던 소저를 기유하소서 공이로 왈너의 조작지얼로서로 닳도나너 알비아나
라 부모의 덩이 아어이 참혹지아나리오마는 포독한성이 죽기를 호모갓치하야 찰하리 제
원디로 일명스라 우리슬하에 여년을 맛침이나 흘거시니군은 그 뜻줄 순종하라 싱이 참석
을 쓰야 공슈사 죄하교이에 비능한삼에이 별시를 지을시 창황한심신을겨우 정하야 일위
너나련싱금옥장에 주옥문장이라 글이 만치아나하되 뜻지극진하교차차이슬푸며 언언
이다 덩지하에서로 만나 호접되기를 원하얏스니사의 처창비절하야 한번 보미양 소저의
일싱을 앗기며 저모덕성을 칭이 하얏스니가 허눈물나물세 닳지 못할지라이에 붓슬더지
고머리에 썼жат든 비옥잠을 써이 고다시 별시아리 성명을 기록하야이에 소저게 미러 왈소
제 지성을 청하시니 싱이 셔목심장으로 참아 못할노릇슬하나니 너몸에 셋천거시어 씌이
라일노써 소저의 평싱을 의지코조하나이다 만일 싱이 목숨이 남을 진디가 허오날날을 잇
지아닐지라 죽어고흔이라도 서로 못기를 밍제하나이다 소저련언이 글을 거두어보기를

이유이하다가다만옥안니슈집하고이원여모호야티도절제하니리화일지광풍을만났
 는듯춘련이최최하야오운을응하는듯척연한지티홀는하고염엽한과질이유슈지화라
 가히남아의간담이최절하더라소저푸른김스미를펼쳐섬섬옥슈에취필을잡아싱의별
 시를추운할시풍우갓치휘필하고다시섬지에잇든옥지환을버셔싱에게미러왈군조망
 극한변을만나위티한성에나가지거늘이런고히한거슬썬침이번거하되첩이사싱간지
 하에도라가되이에신물을의지하야찾고조하니히혀군조는사정이잇는가너지마르
 소서싱이공경하야바다보니필법이상쾌하고목광이향면하야유육이만편이오필쳐정
 묘하야저조신이능되말삼이구이치안코정정씩씩하니싱이처음보미고히너지고또
 한감동쳐창하야이갓은저조와절제한과질이자괴를위하야헛도이맛침을이셔하야잠
 년이일언을못하고머리를속여목목침음하미사년이침담하니이정이항왕이장중에서
 우희들이별하는거동이러자연이안슈려러짐을면치못하더니양소저기연탄왈티장부
 비록죽으미엇지아녀조를위하야룩々히우름을호리오하물며군조이지경을당하야념
 네녀조의게밋철비아녀조를위하야종신스를위하야부득이군조와셔로봄을구하미러니도
 로혀군조를구차케한죄김도소이다군조는빨이형하스존공을차저사싱을의로결하소
 셔설과에이러나니싱이악연스상함을이괴지못하야왈소싱이비록암약하나엇지녀조
 에이별를차오하리오마는소저에의괴를감동한연과라이제가이별하미후회를디하에두
 리나소저의셧천바실로보전기어려오디반다시몸에거나려성명과한가지로맛칠거시

니셔로못기를잇지마스이다소저흔연이스레하고드러가니썬그림지지나는곳의향취
 머물스름이러라싱이가는곳을바라보고가삼가온디품은덩과앗기는심석가득하나감
 히머무지못하고또한다시말를붓치지못하고다만어린드시바라보와녀슬일헛더니양
 구후영신을거두어양공게하직할시잇셔공이녀아와하랑의경상을보고참연합이괴지
 못하야다만악슈류체러니문득하싱이눈물을먹음고와왈소싱이우연이령너로충년에
 회롱한비령아의평싱을아조맛치시니도로혀비는합이김흔지라디하에가다시퇴을낫
 치업도소이다금형초별이디하밍봉이니복원명공은만슈무강하소서이다소싱의죄오
 피초명박힘이니다시무어슬원하리잇고싱이다만명々지중에결초보는하리다양공이
 집슈타루왈말를하고조하나목이메는도다인하야하싱을붓들고실성등곡하니싱이역
 시집슈류체하다가양공조의손을잡고타루왈네글이장진하야문지과인하니초후더욱
 힘써게오르지말고공부하야속히성공하면타일가히문명을어드리라초시옥미등이양
 소저를보미게모와현혜숙덕이비록저의망쭈하소서만못하나또한득출하야장안조릭
 에도흔치아일지라불적마다아름다음을이괴지못하더니홀런저의공조로약흔함을디
 회하야숙녀어듬을하날게스레하고이후니당이더욱친밀하야쇼저를사랑하고우렛난
 덩이진짓주모갓은지라부인이인조하고양부모든소저키히싸쳐나니홍년옥미당하
 청의나조석이절문하고괴질이종해하며언즉유여할뿐아니라하소서성덕인화를보
 와학문과식견이높고위인이충직하야텔스의풍도를씩엿스니그나하다이팔이라보나

나 다의 모하나 이녀의 처신이 규중소저갓르니 양부모든 부인과 소저다 사랑하고 공경하
 야셔로 영의극진하던지라 아제의 외에 참변을 만나 당당이 스변을 지을지라 이에 다향에
 드러가 후의 를스래고 비로 소환난을셔로 파고 슬허함을 마지 아니라 부인이 처사
 녀아의 평성을 판단한 줄 알고 녀아를 안고 실성동곡하니 경상이 참혹한지라 소저홍년등
 을 디하야 옥누슈향이 화슈를져서 물면치 못하더니 모친의 이리 하심을 보고 안슈를거두
 어 종용이 위로왈사 디로 나아가 난스람도 잇삽나니 소녀는 부모슬하에 종용이 되셔 선동
 향을 지라 무어시슬 푸리 잇가 하량의 영경이 참혹하야 향로 도는 기리니 소네만 알륙레
 함이 앓손 즉바 록부모의 성아혹지은니 중하다 하오나 엇지 참아 연연이 고당에 안조이 제
 셔를스디애 더저바리고 스로 물너잇스리 잇고 당당이 그 뒤를 좃츠스 성을한가지로 할
 거셔로 디아 직은 성례전이라 이제 과연능히 좃츠가치 못하니 이에 살기를 유의하옵나니
 티리는 과상치 마르소서 저삼간하나 부인나울기를 곳치나 망창함을 참지 못하야 불각류
 체하코이애 좌우시야를 자휘하야 반전과 양찬을 갓초와 향중에 자되하코고 공조를보
 호하라 당부하나 이녀아에 눈물노하적고나와 성을 피셔일시에 향하니 성이 같오티 옥미
 등은 약질녀조라 급한 힘도에 난처하야 머무러두고조하나 양비죽기로 썩츠가노슈스
 성을흔가지로 하라 하나 할릴업셔양공게 비스하코 청려를 처치 할식양공이 심리당에
 전별하고 도락을 사눈물나리 물금치 못하야 저노슈의 창황한 경석과 가련한 경상이며 성
 의옥모영풍과 문장지화로 심상이 구학에 떠러짐갓타 양공이 노조로 하야 금하성을 따라

가길흉을알여하니 성왕소성의 금형이 주한곳이 업셔사방에 표명하을지라 이제 한변가
 미다시오지 못하오리니 길흉을알거시업고 실노써스성의 한몸만 위할거시 아니라 인
 성제간하야 드러온 즉부모를 효로 섬기고나 아간즉 님군을 충으로 섬기거시 응당인조
 의도리오니 밋칠곳지 업슬지라도 만을 정치 못할거시오 국가결말티 옥함은 안조셔도 소
 식을 드를거시오니 필경을보소서 양공이 그러이거보는지 아니라 사하성노슈비
 도하야 바로 경스라고조하더니 전언을드르니 하공이 함양서방문을보고조현함으로
 처스압영하야 가다하거날 성이 동곡하코 슈야로 향하야 위슈가애가다리더라 각설하
 공이 슈유던하야 단닐셔이러 무러 광음이 홀々하야 얼푸시삼년을 지는지라 갈건포의
 로혹위산인하야 혹위야인하야 산슈에 유정하야의 사호탕하코마음이 할연하니 사희풍
 경을 일안에 두엇고 구슈명승이며 고금명인의 조취를싸라오유하니 인간영육은 일장춘
 몽이라다시 세상에 도라갈의스 업스되다만스조빅화의 종적을차질길 업셔일야에차
 단하코또성각하되 집을삼년을바렸스니 존망이 엇지되고그만하야도라가 슈시의 악스
 를살피리라 또다시 삼조의 공명을금하야 다리고 전리로도라갈거시오 빅화는 비록나아
 갓스나아비를비반치아니리니 필년슈시를피하야 옥미등이보호하야 다라났스니 불구
 에 초질지라 집에가기다려보리라 하코드티여풍범을도로혀경스도로라을식송산을지
 나더니 홀연일々은 정신이 황홀하며 몸이 썰여스스로 정치 못할지라 만산단풍의 가련한
 추석을 디하야 청흥이 소연하니 이에 명암스란 절에 드러쉬더니 문득한로승이 공의 상을

보고경왕명공은진짓천명만마를거나려형형련한호든명장이오위거후벽이어나와미
 간에홍홍이가득하고참화박두호얏스니한갓슬하지척이야문호에멸망지화목전에정
 이잇스니산슈에박남을긋치고그만도라가라공이경문왕그엇지이른말고로승왕공의
 즈손은어육이되고가스는뵈이되얏나니엇지참화아니리오출유호기를그만긋칠셔라
 쌀이도라가제상소식을무르소서공이허탄이녀겨못지안코몸을쉬여두어날후산에나
 려완사이형호야도쳐산슈에금풍츄광을떠여오더니함양에다々르니경성에서하씨삼
 간이모역한다가복주호고그아비와아이나갓슴으로찾지못호야각도에방뵈쳐차져드
 리는즈는천금상에만호후를상급한다호고렬읍이물석호기를가장분분이호더라호거
 날공이디경의혹호야친이관문에드러가빙문을보고자외박화의성명이라이에양던
 란왕이다하날이라설마엇지호리오우리선제형덕과나의충의로이화엇지원업지아니
 리오마는용열호야삼악픽즈를오히려머무러두엇슴으로문호조종을야조망호고선
 제의총절로써도로허역신지화밋치니년하스람보기붓그러온지라하면목으로디하
 에도라가선도를뵈오리오당년에날다려이화를삼가라호나년혼암호야오히려이지경
 을싱각지아얏더니오날날화이에밋쳤스니진실노옥주의선견지명이잇도다님의역을
 노삼죽지화를밋고도정이날를츠즈니년당이나아가법을바드리라호고이에의관을
 벗고벽의소티로본관티슈게나아가왈나는본디역신의아비하희지라이제나라에서츠
 즈시니감히즈현슈법호야면저방주게아리나이다티슈비록제일홈이티슈나국가티신

이라위명이스히에진동호더니홀련당하에면관히티호고부복디죄호미즈못불안호나
 제죄슈의일홈이잇는지라간디로디점지못호야친이하당호야팔미러갈오디상공은원
 님디신이오승상명공이시라비록불행호야죄중에게시나하관에게너모과례호시니소
 관니심히불안호은지라조당과다르오니과례를마르소서공이스왕방주의후의는심히
 감스호나국법은본디스스업나니엇지감히본디를일오리오티슈그공도현안한장즈라
 당시군즈로당당한괴상을행복호야저삼비러긋스르보닉고주찬을성비이호야관디호
 고천히나와위국죄말삼호니공이두어잔술를마시고잔을밋지안나왈비록아심은청던
 벽일이오위국죄중은고인이붓그렵지아나나삼즈디역이라법률이명명호니방주의죄
 인을관디함이두리건던그법이아닌가호나나다인호야다소곡절을밋지아니코쳐스를
 압영함을청호니티슈그괴상을불승감탄호고의일에관치를발호야하공을합거에설어
 압송할시티슈관리를분부호야왕하공이비록국가죄수나원로티신이오충의지스니도
 로에관계치말고지극공경호라분부호니여러관리드리티수의령을듯고하공을뵈셔경
 성으로향할셔분을강기호야도중을살피벽아의소식을듯보더니이러구러수일을형호
 야하로는위수변에이르러말를나려스장에서비를기다리더니홀련죽림으로셔일위미
 소년이벽의소티로압혀나와씨에업디여동곡하거날공이늘나々오니이곳일야로찾지
 못호는벽화러라원리하성이위슈변하에서머무러주야부친의소식을슈소문호더니과
 연죽림중에서바라보니사오기함거에모든죄슈를살어오니현즈로로머리를쓰스되즈

서이살피니이곳부천에의형과시동영차 | 은은이되느니라심하에의심하야명션으로
 탐청하니과연부공이라성이망극하야총망이나아가그경식을보고괴운이막혀한번크
 게울고쓰히업디여이지못하니공이디경하야붓드러보니신식이여도하야인스를모로
 다가이제야차온다장부죽은엇지슬허하리오니님의너를보와스미이제논원혼이
 되기를면하리로다성이겨우이러절하야말이복이변다하니잠간조용한곳에가부즈
 별회를퍼미가하니이다공이탄왈부즈별회이를늘이머지아낫도다연이나군명을듯고
 스명을위하야완혈이못하리니금일은저물엇스니맛당이비를건너여점에드러조용이
 말하즈하고이에부즈한가지로비를건너점중의셔밤을지늘시명션동모든노즈다아리
 이르러실성류체하거늘공이추연단식고공즈의손을잡고전후수말를닐으니명션이또
 한바야으로중전가변에수미를즈제고왈교주의음행간계와옥주소져와허다설화를일
 일이고하고주씨공즈를마즈음히하려하든사기를알고소저의유셔를쫓차공즈를원하
 야이에장쥬양가에가의탁하얏다가공의출유함을듯고두로츠즈단니다가그저도라왔
 더니다시참변을안후이리와기다르던연유를세세이알외니공이듯기를다하미공이
 로괴총적하야요하에비검을빼여이쌍을쳐디질왈쥬씨모즈녀의간흉이이에밋쳤스니
 니블명하야저닷지못하고간계에싸졌스니엇지통한치아니리오옥쥬이죽으며네또한
 다라는후전후흥게잇슴을짐작하나일조의급한변을막지못하고의심간심화되고교쥬

의말를크게미뎠다가졸연이흥변을만나옥쥬를참혹이죽이고세략의디익이심분의려
 하나나의소망이글너지고지감어업슴과세상인스의미들거시업슴을분한하야세
 상의마음을두지안나라집을바라고산슈에류락하야만스를잇고즈합이라네나아감으
 로붓터의심아밍동하야간상을잡아니고즈하나진실노근본이업고어지려이현혹하니
 도로허부즈동괴디란하디인류이상멸하고문호피망할지라고로합구하얏스되쥬야우
 분한지라쾌히심회를떨쳐던하에오유하야너희즈최를찾고사히로분쥬하나종서그림
 즈도업는지라정히울적하야집으로도라와다만너 | 스스로아비츠절날을기다려보고
 즈하야되에나려오미이흥변를듯고왕법을바드러도라가나니삼년지니에삼간이멸죽
 지화를닐우니이도사나의훈즈치못한죄라삼즈의버혈을오히려죽지못하고너집이망
 함도또한니슈어나와실노옥쥬의참스야엇지통쳐자아니리오진제벽의문장지화초출
 하니필련디달할지라나의지인이헛되지아니나홀노그즈식을몰나스니엇지붓그림지
 아니리오연이나니평성의진제벽을기탄하야일염에병이되얏더니이제야제벽의무죄
 함을아랏스니죽어도하이업스리로다하고분함을이기지못하야음악한모즈너를한칼
 에버히지못함을한하거늘성이또한체음홀스름이오낭중으로쫓차져져의유셔를받드
 러드리니공이등하에나리보미그필법은니르도말고쳐창한말과격절한뜻지귀신도감
 동할듯금일지변을면경갓치빛취엿스니공이셔로이얏기고한하야두줄눈물이웃기슬
 적시니그구든마음이로디얏기고슬허함이이갓더라양구후탄왈옥쥬 | 스랏든들이변

이아나나리듯다긋씩엇지지성을늘를쳐닷게못하고도로혀조용히죽은교시로이릉셔
 합이그지못하더라성이부친게옵고왕이제야애조현하소왕법을바드려하시나이잇고
 공이란왕신조되여엇지군명을거역하며왕법을도망하리오이제나아가오스의죽음을
 효칙하야신절을일치아닐지라연이나나라에서비록늘를죽이셔도너는널아싱각하야
 조급히구러몸을바리지말나스지불가부성이니한번죽으미무어시유익하리오지삼기
 유하니성이머리를속여소리를먹음어신식이지갓트니점점영신이혼미하야공의무름
 희업티여인스를모로니공이잔잉함을이그지못하야옷슬풀고품에품어괴운을진정하
 미문득정식척왕화여복에동심하며사성을굴고하야설설한우름이아너조의티도라니
 평성의이런거동을늘々히너기나니니아희이러할진된반다시너눈에보지말나성이체
 읊티왕야々엇지참아인정받글척하시나이잇고소조이가하을씩에참아떠나지못하얏
 더니저저유교와음독함을두려망극한정을먹음고하직지못하고일조에이천호와천리
 에류락하오니하정에참담하더니삼년제월을지나고다시두어히를지난후형여릉문에
 득의하야영화로이도와부조형제인륜을완전하고다시모조윤의를완전히할가바라
 고괴약하옵더니천만의외에이화를만나니일작오날々을나든들당초에엇지나왔스며
 찰하리죽을지언정한가지로되섯다가사성을중결할거슬무익히삼년을떠나망々이그
 리고이를살오다가금일망극한가온더부조겨우만나이제한가지로나아가야야를참혹
 히영결하고잔명이홀노살미초목심장이나능이참지못하리니비록법에버셔는들하면

목으로납어제하리오말삼을쫓츠안슈여우하니괴운이엄석흔듯참해보지못할지라공
 이츠시를당하야참결한형상이심장을최설하난지라심신을진정하야강잉위로키유왕
 더저효조난부모의뜻을받들기로본을삼나니이제네나의뜻슬저버리고조하니진짓효
 아니라하고타루함마지아니하니명선등이다체읍하야성식이참담하더라공이아조로
 동침하야모의하미유아갓트니부조의정이가련하더라성이침석에혈루저졌스니공이
 그부지처못함을헤아려참연한정을이그지못하야울적하니원리공조남미조안을조실
 하고고조라미공의사랑이조별하고그위인을극의하더니중도에일코주야상도하다
 가이제겨우만나거의영결케되니아조의비결한심스를티하미평성강괴최찰하며아조
 를어로만저이지연지하니성이겨우강잉하야절노너사사라지고익근쳐오직잠간도불
 이하니공이아조먹으면먹고먹지아니면또한하져치아니하니성이부전에서강잉진석
 하나지원극통이철탄하야부친의남성지일에당당이스약을바들줄아는지라장차먼저
 죽어모로고조하야야쫓차죽기를허치아니시니지원극통이가삼에막혀먹으면죽시
 도하고또도철하니괴운이쇠진하야형국이위고하고가만한가온티가삼을두다려하날
 를부르지저야야의명을비논지라공이참아보지못하야속식죄외의잔잉하야옷슬벗고
 품에품어괴운을진정하미만단키유하니성이부친을위하야강잉하나옥골이초최하고
 형용이환달하니기정이천고에슬픈일이러라명선등이상약왕쥬인이상경하야사디에
 나아갈진된우리삼인이한가지로죽어혼백이뒤홀씩로리라하더라형하야황도에다다

르니 일일은 공이 명선등을 불너 부락왈이 제나의 죽음은 분명하고 공조의 소성은 오히려
 모로니 만일 법에 버셔나 거던 여등이 전심하야 그 일명을 보전케 하라 비록 나라이사하셔
 도 집히 살고져야 나리 내여 등이 망주의 타고를 일카라 지유보호함을 전심하고 만일 나리
 허부조를 다 죽이시면 여등이 우리 부조의 시신을 거더 못고 선제스묘를 밧드려 선영에 안
 장하고 각각 물너가라 삼인이 실성동곡하야 알만 일공지면 화할시면 금일유교를 봉행하
 려니와 불연즉소비 등이 엇지 홀노 살기를 구하리잇고 다만 명하진 바를 봉행한 후그 날이
 라도 죽스와 피서리이다 하나 공이 천연단왈 여등이나의 유언을 좃차미또한 총성이라잇
 지긋타여 죽으리 오호고 단식함을 마지아나 하더라이러 무려 경성에 다다라 조현하고 더
 슈의 포문을 올이니 차시진상서사람으로 하공의 도라움을 탐지하더니 일히이 당두함을
 듯고 모든 디선과 중관의 제청하야져 부조의 목숨살오기를 갈구하니 중인에 후하공의 친
 구도잇고 또 하공의 총적하든 바를 아는 고로 힘써 구하기를 언약하더라 면저 함양장계를
 드리고 중신이 다답전에 서하회지부조셔로 붓드러 쌀이군명을 밧드려 조현하는 그 총의
 를 알리고 은전을 드리워 부조를 스함심을 고하니 상이 그 총의와 공퇴를 칭각하스이에 도
 셔를 나리와 특은으로 회지부조를 스하야 북희섬에 안치하라 하셔니 법으로 의논하면 부
 조다 정형은 면치못할거셔로 더하회지전장에 공이잇고 총의 낫타 날 쌀이나 회지 만일 나
 가지아 낫고 삼간이 모역하얏스면 능히 스죄를 면치못할거셔로 더삼년을 출유한 셔를 타
 미나 감히 명을 스하는 거셔로 더 백화는 어려셔 독슈를 피하야나 갖다가 집어 망한 후도 명

을 들듯고 도라오나 가련한 지라 일노 써법을 쓰지 말고 스하노라 하셔나 만좌다 성덕을 총송
 하고 진세벽이 돈슈벽비하야 산호만제하더라 상이 하회지공노와 총의를 슬피여기스이
 에 뇌시로이 뜻슬이 르시니 공이 천연 황공하야 도셔를 밧습고 북궐를 우러러 돈슈벽비하
 고 실성동곡하야 만행루삼각슈에 빗겨호르더라 성이 스를 더하야 슬허왈 죄인의 슬허하
 이 엇지 접이 망함을 구하리 오부천의 평성의 총심이 고인을 범밧고 조하셔 거날도로 허
 그 조식이 모역지 죄극를 에잇스니 엇지 원통치아나리오 과광은 죽은 후화를 빌헛거니와
 죄인은 스라잇셔이 변을 만나니 도로 허과광의 죄언이라 하고 회지왈 논진적조하디 무저
 리오 마는 회지의 조식이 논진될 줄 엇지 알이 오회지 본디 더신으로 답전에 근시하더니 일
 묘의 역신이 되어 죄극를 에잇거 날 성은니 망극하스고 금에 업손은 전으로 관스하셔니 비
 록호성지 덕을 넘스오나 죄인이 되어 더언피에 조회할이 업고 성상은 비록 특은으로 죄인
 에게 묘지를 나리 오시나 죄슈 되었슴으로 한조소봉도 올일 길어 업스오나 군신의 정이 남
 의 신척논지라 엇지 망극지아나리오 찰하리 남군이 주셔는 약을 밧드려 한 번 죽어 너시 탐
 하에 피심이 원어늘이 재던은 올 넘스와 구차한 잔명이 다시 천리 회외에 류락하야 혼백
 이 연곡지하에 도라올 괴한이 업스오나 사 랫슴이 죽음만가지 못하도다 언파에 비루동행
 하야 우성을 지으니 황스총의를 감격하야 도라가 상괴그 말삼을 쯔셔이 살피니 상이 돈연
 이 감동할스이에 가 만이 스를 보니 스황금오릭양과 여쭙를 쭙셔고 왈 집이 경의 총의를 아
 지 못하리 오마는 왕법은 사스 업나니 짐이 홀노 선왕의 법을 못치지 못하야 경으로 하야 금

삼간에 년좌를 두어 시외에 충군하니 엿지가 석지 아니리오 예공노와 외로 온충심을 슬허
 녀겨 금빅으로 위로하고 어쥬로써 짐심을 표하니 다행허하늘을 원망말나 공이 불승황공
 하야고 두빅비하고 돈슈체읍왈 성상용은이가 지로망극하니 두리건된반듯하법이안
 님가 공을나니 성상이 죄신을스스로 이상하심이신의죄 더욱김도소이다 신의부조
 들을면치못할죄인으로성상의덕화에서라 남도련은이 호티하시거날다시고금에업스
 온은연을나리오시니신이석목이아니라 썩로바아갑습고조아니라니 제성상이어쥬를
 스급하시며금빅으로상스하시니신이다시련안을우러러음용을듯조나다르지아
 어쥬를먹삽고금을받조와황공하며위람함을닛좁고도로혀신의원이푸리지와죽어도
 질거온너시되리니엿지참아원국지심을두리잇고다만디하에결초보은호리이다말를
 맞치미루슈여우하야술을아스며불승체읍이라이에백화와명선등으로더부러망컬스
 비하고어쥬를불급하야다먹이고련은을너르며저삼감읍이라세도라가니어심이참
 년하스정비를하도로말고근디로보닉고조하시나왕법이리과하야신민이시비잇슬가
 두리스조치시나가장척은하야하시더라차시공의고일천구각술를가지고니르러가
 만니보고서로슬허눈물을흘이고환눈을치위하야공의스라나미진상서의구함안졸일
 으고교주의설화며삼간의죄상을조제현하니공이시로이분로하고진성이소식을드르
 미반기고슬허하며옛말를다이르고희허탄왈이스람의괴상을조제이알고거두어도라
 와설노써허흔하고밋기를중이하더니불의에공교한참을드러일이의심업기로쳐닷

지못하고곳쪽에분함이너죽기보다더하더니이제아람다운소식을드르니그마음이상
 괘함이너집참화를도로허이르리로다나의불명함을한치아니코위티한씨에구하니진
 짓심시로다다시우쥬쇼저의유서를너여좌중에뵈고그간하던말를이르고이러듯신이
 한과절노제가너집에나서능히보전호리오요스할상이아니오비록넋치나삼조의우히
 될가앗앗더니문운이설여제목숨까지급히맞치니이정히한실이망호미와룡이죽음
 갖도다말노쫓차루슈사미를져서니좌중이유서를보고그말를조제이드르며결절장탄
 하야차석하고립화공조의유모영중으로불승칭의하야그체위과인함을앗기더라공이
 님에가득흔말리다련은이라보국지못함을슬허하고제공을당부하야어지리보좌함을
 부락하니말삼이다총의로비릇는지라문지다낫빛출곳치고격절감탄하더라어시에하
 성의노쥬공의면화함을하늘게스레하고그깃부고질거음이당초화망업슬씨에서더하
 니오직진상서감은함이썩에스못치나서로이망미를싱각고더욱그말이여합부절하니
 앗기고슬허하더라명일차스공의부조를영하야길은늘서넛비복이다이르러동곡하야
 뵈니공이또한슬허하며웃듬노조와웃듬시비를불너선제스묘를다선영에미안하고금
 보를쥬어향화를받들나고말삼이심비창하야명을나리니비복이감히우러보지
 못하더라원리하공이잇슬씨에실실홍봉우의게사당처를님의부락하얏스나또흔비
 복에게다시청하니비복이고두슬허하더라어시에하공이경성을떠나적소로향홀시중
 심에진상서와볼가기다리다가종사아니음을고히녀겨다시못볼가아연하더니이늘오

십리를형야점에 드러쉬더니 차시에진상셔화공부즈사라남을디회하나그디에원녀
 을슬허다시정비함을청코즈하나이묵이번거하야조용이정회를퍼지못홀뜻하교집짓
 아나가고잇는늘성을떠나물기다려금은경보와유찬을갓초와필마단동으로빨이뒤를
 좇차형야스관을차즈가니늘이황혼이라공의형초처소를차즈문열고드러셔니불도
 아니혀고공의부즈노주누어인적이고요하거늘상셔소리를너도아니하교드러가니공
 의부즈누엇다가보니일위쇼년장스드러오더라

第八回

北海島小屋河伯謠居
紫霞洞古宅聖仙來訪

북海道적은집에하박이구양가셔살고
자하동네집에성선이와셔차더라

차설공의부즈누엇다가도라보니일위장즈당건록포로촉하에단정이섯스니풍광신체
 암실에도료하더라공이형허드러온가여기다가자제이보니상셔라공이불승희렬하야
 디왈나의명충정심을가지고또한녀를범하야부즈정형을면치못홀비어늘련은이호
 호하시고그디힘써구함을힘입어부즈련일을다시보게하나은혜는초성에다갑지못하
 리로다언필에참연하루하나상셔또한눈물을먹음고사래왈성문의이번참화는실사의
 외라엇지다시닐를비리오명공의충의로써이런참화를만나시미실노원억하외다소
 성은라향궁박공은인성으로티인의양혹하심을힘납어정동부즈어늘간음사특한녀즈
 의롱략한비되야몸이누명을실어장초일명이위급하거늘다형이령녀의가라침을납어
 망신지화를면하교달신도주하야공명을일우니이는다티인과령소저의주신비라성아
 즈는부묘오활아자느령네러니다녕소저학성으로만나충년에비명참스하니이느성이

스스로히함갓하야그참석하교지원분통함을싱각하미실노이몸이죽음보다더앗갑도
 소이다그늘흔절효와신명한지식과절제한조식미질노원역케맞치니종련지하니되야
 비록빅골이진되되나엇지그지원을풀이잇고님형의총망이잠간만나창황이스별하미
 기시경상과별한을엇지참아다괴룩하리잇가성이홀노도주하야떠나미스정에절박한
 중령녀다만금일지화를근심하야명공부즈를성의게부락하오니곳씩는오히러밋지안
 앓더니당차시하야는그말이절절이맛츠지라그신명함을더욱탄복하옵나니소성이발
 신후삼간이성을알고문득기거아닌는지라병남지못하야음히를두려벼살를바리고집
 에드러습더니삼간이먼저권세를닷도와현인을모함하교당스를타는하나소성이강기
 지심을참지못하야회복을부지어련하교저를잡아논학하미소성이정위에갓쳐스성을
 불가척이러니소인이맛찰주한줄모르고불의로홍계를일위후궁을체결하야국모를모
 히하교직신현상을함이공찰하나련도엇지무심하리오간상이적발하야추국하느소암
 이성의게도라오니소성이령녀의탁고와명공의은혜를싱각하나니목숨을다하야씨를
 타갑고자할진딘삼간을엄살하야결안을받지말고멸구호는죽조문에적죽지화를면할거
 시오명공부자의보전함이이에잇슬거시로티신자되여국록을먹으며군명을바드려
 디류를다스리미사정으로괴군함은사군지충이아니라먼저공을잡아적절을다하교조
 초사은을갑호미진정으로상달하야련은을바라만일명공부자를구치못홀죽뉴명을져
 바리느니당하이공명을바리고물너가사싱개회를산스에못치고자하얏더니련은이저

중하스지원을 좃차 명공부자를 스하시니 이국은 이오령녀 명명지중에 무우하신 가하나
 이다 소성이 다시 명공게득 죄함이 있나니 명공을 구하며 령녀의 정결효의를 낫타 너려함
 으로는 이왕지스를 전달홀시자 연음녀의 죄악이 적발하온 지라 남의 군명으로 정기죄하야
 학생의 장한애 초스를 바다 다키니 한번 배허버하나 의원을 풀고 령녀의 원수를 갑고져하야
 더니 오히려 황상게옵서그 일명을 스하스 진양교방에 기적하시니 너한니 풀이지 못하나
 명공게 퇴오미또한 참괴하와 다령여의 은혜와 절의를 갑홀길 이업서 그분묘에 비석세워
 절의를 표하야 처제하며 답전을 두어 스시향화로 무주교혼을 위로하나 가히그 명을 어드
 며 무어 시유익하리오 하늘을 첫쳐며 쌍을 파도 그 옥안을 볼일이 업스니 온갓일이 다 불관
 하고 허스르 소이다 소성이 비록 흉계를 피하야 명공게 하직지 못하고 혼야에 달신하나 후
 홀하스든은 턱을 이즈리오 마는 인심이 변함으로 정성을 말홀길 이업습더니 화란지후에
 명공이즈 현치아니 실가스 방으로 심문을 다 가남의즈 현하심을 드르니 죽시나 아가 뵈을
 거시로 티이 목이 번거하야 파츠정회를 퍼지 못하고로 금일 동용함을 타느기야 나르러나
 이다 공이 청과에 기연탄왈그티도 장부어늘었지늘 보기를 이렷타시록하하나 노너비
 록불명하야 스라서 광광의 화를 보왔스나 그의 견은 군으로 일체로 다 신즈되야 스스을 위
 하야 국적을 두호하며 공도를 닐운 죽이는 소인이라 그티비 록이렷하야 너집을 구하나
 그티직절이 업슨 죽니 항복지아나리라 우리부즈사라 남도 법밧게일이니 락은과그티의
 괴를 락골에 사이리니 또 무어 슬바라리오 삼죽이 주멸지화를 면하니 진실노그티의 구함

과성은 이망극 하심이라 음녀의 죄악이 만금에 써으나 남으러든었지그티의 처치를 원
 망하리오 쾌히 절치하얏스되다 만죽여 업시치 못하고 일명이 남야기덕에 드다하니그신
 육함이 본디 분히한지라 청컨딘 군은 날를 위하야 츠녀를 버힘이도 홀가하나 너만일 불
 진딘잠시나 살여두리오다만 여아의 죽음은 나의 불명한연고라 누를 한하리오 제스랏스
 면 팔련화를 만나실지라 그런진명한인 지엇지너집에나서 보전하리오 죽음은 실노츠화
 에 관계하미니 군을 보미석사의 구하야너아를 더욱 사랑하교군의 영귀하미극하나 속절
 업도다 말노 좃츠루슈를 금치 못하더라 하성이 진상셔를 더하야 더은을 청스할시성을 도
 라보고 알형의 가화는 실시의외라다시 일너무삼하리오 싱왕형의깃친글도 망져져유서
 와동봉하야 두엇다가 주거날님의보고 몸에 진여서로 형을 더한다시 반기더이다 닐하
 야 남즈의 결약한 연유를 자세 베풀니 싱이 증전심희망극하야 밋쳐부친게도 고치 못하얏
 더니이늘이야 비로소 알외니공이 탄왈그녀즈는 진실노 정절의녀즈어니와 그여즈의 일
 씩을 밋칠다름이라 무어 시유익하리오 인연을 일울길 이업슬거시오혹즈일은 들폐인이
 되얏스니 명문에 아람다온 열녀를 그릇함이 아니리오 진상셔홀련감탄알양씨의 절의아
 림답도다그말를 드르미니나의 석사의연하야 심이서롭도다 남의 슈절함이 잇슬진딘아직
 은 밧부거니와 사제를 보와 슈연후니 힘써그티성취말미를 청하미 인연을 일우게하리니
 양씨종서직힐가니 아직 존문을 위하야너모섭력함이 사정에 관계하야도로 허피초이치
 아닐가잠스하거니와이후너힘이 밋치면진심하리라그티는 양씨로여운이잇거니와나

논가히속절업도다 하성이 또한잠년조상호고흥년유미등이나와상서괴뢰오니상셔반
 기고슬허소저의말를못되못고것히되섯더니양소저의아람다옴과형적을저셔이아되
 니공과상셔불승칭찬하거늘성이소왈그녀조마음을변치아닐듯하되그부모의마음을
 밋지못하리니도로허근심이되나이다공이더욱쳐셔하더라진상셔하소저의유셔를조
 조보니필법이괴이합과사의격절쳐창호미시로이육안화티를티하야당々한정논을듯
 는듯반기고슬허참연조상하나다시조괴의게체글를니여공의게드리고교류의음스
 합과조괴영춘각에드러가셔로보고하든말를조세고하며분괴를이괴지못하야하니공
 이글를보고진성의말를드르미그진명함이귀신갓고저휘여초하니셔목심장이라도감
 동하려든허물며평성이중하던부여의명을니르리오공이글를어로만쳐불승비동하야
 안슈천형이라흥년등이실성류체하고하공조역비하나오직야야를화성유어로관위
 하니진상셔또한희하단식하고하공을위로하더라이에중용이과거와전후설화를일을
 시진상셔가저온유찬을드러스스조잔을잡아공을원하니공이슬픈중또한헌々장조
 라티소비회를물이치고술를만취하고의괴광활하야담소현화하더라진상셔다시유찬
 경보와금은취단을만히드러왈이거서스소하나아직스퇴할거서니명공은하정을동축
 호소서공이희하왈니엇지타인의금帑을취하리오마는군은무이골독지정이라니엇
 지물이치리오진상셔스레하고노복을맛기니공이진성의손을잡고기리단식하며루슈
 여우하더라공이진상셔다러왈군은조심하야직절노형제하라나난다시현안을외옴지

못하교만리타향에고국을영결하니구초한인성이사라나미깃부지아니하되인성을관
 위함은하아의정리들도라보와부조셔로의지하니그정사가련한지라그티난금일영결
 이니하일하시에다시만나보기를기다리조원컨디군이더러이녀기지아니면디하에
 가셔다시반기리라상셔비스왈엇지그러홀리잇스리오조만에성이름을타적소에가뵈
 을날이잇스리이다공이집슈체루왈참아이별치못하니엇지하리오상셔호언으로위로
 하고셔로연연하야각각일장이별를맛고길을난화남북으로하여지니피초도라보와조
 마취를드지못하니진상셔혁을잡고가난티를바라보니부조큰칼를쓰고말게설너던하
 죄슈되야초인이압영하야고々히히도를바라고가는형식이참담하니셔일영화부귀성
 각고잇셔를보미져갓치늘희함을닐리오상셔멀이가도록도라보다단식왈만일하씨
 아르미잇슬진디져부조의경상을늦길낫다하고참연하기를마지아니코유유지지하다
 가그림조감초인후바야호로도라오니라초설하공부조덕소도향홀셔부조셔로의지
 하야유야비도하니원로형녀에신괴조로불안하되일시를지류치아니하더라하공의일형이
 니초관니그춤의를감탄하야해적함을앗기고초탄함을마지아니하더라하공의일형이
 강주로지날석성이공개알외되양부의셔하의존망을물나초조하오리니예셔머지아
 이니잠간가보와슈미를일르고급히도라오면거의야야의뒤를밋치리이다공이을히너
 거허락하야슈히도라옴을당부하더라성이말을달려양부에니르니발셔황혼이라나아
 가문을두다리가동이나와보고티경실적하더라셔에양부에서하랑을보니고부모형

제 소저를 위하야 주야 슬허하며 소저하성의 사성 존망을 근심하야 나의 실됨을 미지화
 장을 폐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코가인을 경스에 보니야 쇼식을 탐지하야 미쳐도라 오지 못
 하얏더니 성이 왓심을 듯고 상히 놀나고 반겨 공이 밤비나와 성의 손을 잡고 안호로 드러가
 부인으므로 더 부러 볼시 축영이 휘황하고 괴안니 정제하더라 성이 드러가 부인게 비현하니
 부인이 답례하 고 죄를 정하미 공의 부워지는 바 화변을 저서이 못코 지금은 일을 무르니 성
 이 더 왓던은 이 망극하야 감스원찬하미 지는 나 길에 스성 존망을 고코저 이르렀심을 고하
 니 공의 부부 그 유신함을 짓거하나 맛참니 폐위셔 인하야 회외 중치 됨을 슬허하 고 앓겨 눈
 물이여우하니 성이 또 한 추억은 상상하더라 공이 녀아를 잊그러나와 퇴이 성이 레 필에 소저
 참수져 두어 날 명축지하에 저서이 살피니 옥린화 안이 더욱 찬하니 그운 말이 호트러져
 빅설보협을 덤헛고 담장 소안이 가려하니 시름하는 티도 옥수바람을 만나고 명월이 구름
 에 싸침갓흐니 요요 빙청하야 장강이 위슈에 시름하는 듯 섬々 가려하야 참시도 봄빛 썸갓
 흐니 성이 그 절세 숙녀의 정상이 여초함을 저상 참연하야 숙시 양구에 말리 업더니 반향 후
 공슈 칭스 왓소성이 요힝 참화를 두루 혀던은 을 님스 와 부즈 감스 총군하야 적소로 가는 길
 에 이 곳이며 저아 날 식 존부에 하직을 고코저 이르니 더 인이 오히려져 바리 지아니 스위티
 하시고 또 규수 지안을 뵈시니 감스함이 극의로 티소성이 저리가 미히도 풍상에 도라 올날
 이 생각하스 소성의 사람져 바린 죄를 면케하소서 공이 정석 왓이 엇진 말고 비록 흥안은 편

치아나 스나 녀아는 군의 집사람이라 티희상 전이 되어 도 변치 아니리니 그티는 천금 증심
 을 보중하야 풍운에 길사를 기다리고 이련 일을 녀에 두지 말니 성이 총스하더라 이 옥고
 공이 녀아를 드러보니 고성으로 더 부러외 당에 나와 밤을 지니고 명도에 가기를 님하미 부
 인이다 시 청하야 보고 주찬을 주어 전별할시 부인이 주루만 안하야 왓금일그티 올보니 미
 하일하시 만나며 녀아는 흥안리 부라 원권 더 군은 삼가 보중하야 타일 빛나게 도라와 미문
 에 가리기를 안아 구약을 성정하야 문창에 거울이 두렷하 고 요금이 지합호 즉첩이 죽어 도
 한이 업스리 로다 성이 척연스 왓소성이 신명에 외오녀기 심을 님스 와 가화여 초지경에 미
 쳐 몸이 영히 수졸이 되어 영녀의 일성이 미치게 되니 진실 노부러하는 일이 아이나 적악이
 되지아 나 리 엇가 원권 더 부인은 물우하 시고 만슈무강하 소셔 부인이 합척차 단하더라 하
 직고 나와 양공을 이별할시 양공이 문석으로 더 부러 십여 리에 나와 보니며 눈물을 나리니
 덩이의 의하고 문석이 성을 뵈들고 등곡하거늘 성이 저슴위로 하야 이별하 고 쌀이 달여 도
 라와 부즈 모다 한가지로 북희 섬에 이르니 망々 창회에 적근 섬이 외로 읊더라 하쳐를 정하
 고 차관이 진상셔의 글을 래수게 드리니 래수보니 하공 부즈를 부탁한 말이라 죽일에 하리
 를 보니 여양 찬 주옥으로 은근이 위로하더라 차관이 하직 할시 수월 들동 하미 그 덕을 감
 동하더니 그 처소 한거동을 불상이 녀겨 떠남을 앓기 더라 하공 부즈 진상셔게 단덩셔를
 전하나라 수간 초옥에 노쥬의 지하야 성이 주야 효양을 힘써 화향의 선침과 조로의 부미를
 효칙하며 흥중에 억만 지등을 어리엿스되 부전을 님한 주화 안유어로 그 수회를 위로하 고

옥미 등은 침선방적으로 옷을 일우며 명선영찬은 밧갈고 나물항야 우리는 정성을 심회감
 읊하더라 하공이 깃디고 초심항나 즈연위회항야 세월을 보내며 또 아즈의 슬픈 뜻슬로즈
 괴위로 항야 천수 만한을 당척항고 일신이 안한 항야 후탄금항며 심스를 벗쳐서 내에 고기
 낮기를 즈로 항고 음풍영월항야 늘를 보내더라 원리가 곳디히외변스로 왕화 및지 못항야
 호풍을 면치 못항얏더라 공의 부즈적거 함으로 벗터 효제 충의 병행항야 안심이 흠연항야
 요순지치를 일위삼강오상의 교화 밝으며 인음스부와 인민이 추종항나 공의 부즈깃거야
 나 멀이 거절항고 주는 거슬 밧지 아니되 자연 승복항야 문하에 수학항는 자가 득항야 마을
 을 명여 초이라 항고 공을 적송자라 항고 성을 안징에 비기고 비복 등을 키즈 취갓다 항야 현
 명이 원근에 자자항나 절도스와래수공경항야 소산과 례물을 만히 보내되 공이다 밧지아
 니더라 화설진화성선옥주법선관에 잇슨 지삼제출추되얏는 지라 화식을 먹지아나 항고
 런문비셔와 선가도 항을 님의 어드미진제의 늑기와 인간의 타골를 버섯스니 완연이 우화
 등선한 듯항야 우호로 런문을 통항고 아리 로디리를 달항야 명견만리 항는 지조를 사미에
 나 헛스니 선복에 일월을 보니야 인세를 묘연이 쓴치나 다시 거릿셀거 사업스되 집을 생각
 하미 부친의 화망을 결연항야 런과의 청홀씩에 후원감런루에 올라 런문을 보미그 부공의
 주성을 보고 길흉을 추수항미그 출유함과 다시 스화를 버셔 북히에 안치 함을 생각하미심
 스의 망극함이 일신이 셤이니 일일은 도스게 청왕제즈스부의 덕은으로 스화를 버셔나여
 괴머문지삼제라 인간 소식이 아득항오나 집을 헤아리니 옥당화망이 반듯한지라 지금공

부일위시니 잠간아비를 구항고 다시 도라와 선성을 피서은 해를 갑호리이다 도시소왕네
 또 잘 생각항도 다다만 인간에나아가 영육에 잠기 인죽엇지 도라을 줄 짐작항리 오성선이
 돈수비스왕이 엿진말삼이니 엿고 비록 공후지락이라 도원치아나 항나이다 세상이 일장
 춘몽이라 다만 부모의 성혹한은 해를 저바리지 못항야 죽기로 써 갑흔후도라고즈 함이
 라 다른 뜻시 아니로 소이다 도스소왕군자의 일언은 천년불기라 능히 말을 못치 못항리
 라 성선이 티언왕티의 에버셔나 지 못함은 의여니와 물욕에 결이며 부귀를 사랑항야 진
 제를 유령항고 선성을 이즈미리오 명부에 침항고 스부에 버힘을 바드리이다 도스덕소
 왕성선이 명동항나 오히려즈고 신상을 모로노도다 세상이 연이머릿스미부귀와락이 빅
 년이라 엿지능하마음으로 곳치리오 너의 뜻준그러항나 문성의 개혁미야 뛰어나지 못항
 리니 문성을 엿지항고 도라오리오 문성이 너를 알면 죽기로 바리지아나 리니 가히득항
 라 성선이 비왕연죽다시 못오리라 항시나 잇고 문성은 티의에 장부라 엿지 군부의 명을 불
 순항고 녀성을 관계항리 잇고 선분이 잇슨즉 비록 유련항나 결단항야 뜻지아나 리니 구々
 한 영육을 탐항야 더러온 혐의를 무릅쓰리오 문성이 관유항나 물이치고도라오면 제창지
 못항리니 엿지저와 부스되리오 도스왕그리면 문성이그티로 항야 죽어도 불관이여기라
 성선이 티왕사성이 엿지 불관이여기리오 도스왕스성이 유련한죽그티 짐심이그릇되리
 라 성선왕사성이 지런항나 가비야이 죽으리오 원스부는 만전지계를 가룻쳐스다시 선가
 에도라오게 항소셔도스왕너의 부부스성을 엿지 막으며 상인의 소욕을 엿지 금항리오나

의 알비야니로다 성선이 저 두침음반향에 일오디실노이러호면논쳐한지라스세를보와
정성을다하야다시음을싱각호니 비록아조오든못호오나다시도라와선쳐코자호나니
진실로가식부은갓튼지라진림이엇지잇스리잇고도스왈제연이머러스니마음으로못
호리니모로미박절이호야남아의괴운을씩그며성정을상회와병들게말나아직은인연
이순처아니리니공이일우고직시도라와씩를기다리라성선이비스슈명한뒤도스금관
선포를주어왈이단은오형년유단이니죽은사람을먹이면품도철장에상호며악괴에상
할령을곳치나니혹쓸곳지잇스리라삼년후는네영위를베풀거시니디공을일우리라성
선니수명호니잉무죽츠엮더라부작을써초롱을민드러라고한별유의를남고북을향호
야가니시논철월망간이라월석을씩여가더니한곳에다스라날이서거날길을츠즈나아
가니롱인드리면리바라보고서로가듯쳐저저귀여왈사람인가귀신인가선선이강림호
야난가호고분々여류호니소서이기동을보고함소호며말호야일오디나난본디선선도
귀선도아니라하유선비로과거보러오다가형장을도적맛고길을물나뭇나니날을위호
야길을가듯치라중인니비월우리난선동이강림호신가시부오니엇던강악한도적이지
런상공의형장을아스간고차탄호고나와일오디음식이더럽지아이々히핍함을면호소
서호고길을가랏치거날하소서소이답왈후의를감스호되도반을갓먹엇스니또엇지먹
으리오다만경성이얼마나호노답왈삼일정되니이다소서드디여길을행호미비록것난
듯호나정보신속함이난듯호니전부로운들이뒤히쓰로며혹가듯쳐진짓선선이라호

더라삼일길을하로에득달호야경스에니르러경성도로관광츠츠전호야요지선츠하
강호얏다호더라하씨동화문고획을츠즈하동하스마집을무르니혹왈이상공은라국
에드러게시더나멸문한집을츠즈무엇호려호나노하스마금년출간에난역호다가삼형
제유륙호고가지를적물호고동족이년좌로폐출호얏스니엇지집이잇스리오우문왈하
스마난어진제상이라엇지모역호얏스리오그소식을즈제이르라기인왈하공은충의
명공이라도몹쓸즈식을두어모역호다가화를남엇나니하공은맛참유산호려나가삼
년만에오니그스이변니낫스미엇지아비알이오쳐역한장군은경물만결기다가이런
변을듯고도라와즈현호니런즈투은으로사마와소즈를감스정비호야북회에안치호얏
스니엇지원통치아니리오상공이엇지무르시나노소제왈넛날아든스이라풍편에전함
이적실치아나뭇노라너의난하가에엇던사람이요중인왈소인은하가비북이안나친한
집가정이라도승상이하스마로사가되엇스미즈서이아나이다소서우문왈엇지연호가
노기인왈너모아라부즈렵나이다호고닷거날번거호야다시뭇지아나니타강을짐작호
미시로이초악호고슬픈중야와공즈의면스함을가만니하날게스레호고양런음왈너
당초오날날을헤아렷거니와화라야와의총의와티의덕화로금일이원통치아니리오
명명창련은어엿비너지소서슬푸며분함이가삼이막히니공의년쇼다병으로남의엄살
참경을당호고식외에원적함을싱각호니창츠가싶어지거날공즈의의형이눈에그려오
며설른회포가삼에어리니가만나소리업스루슈삼삼호니이욱히어린듯호다가헤아리

미스고 무친하야 동서에 의탁할디업스니 아모디로 향할바를 물나 방황하더니 립중에 몸
을 감초와로 상인을 살피며 마음에 생각는 비잇더니 홀런도중으로 서벽제소리들이며 스마
쌍곡이 분분하며 청나산아리 북은 슈리를 완완이 미러나 아오니 거상의 일위쇼년니 금관
면류에 홍표아홀노 띄옥소리 정정하야 고거에 단좌하얏스니 옥면월처에 의히는익은
듯하니 이난 다른사람이 아니라 비년슈약을 정한진성으로 추호다림이 업스니 그양장표
알하야 디귀인의 과상이 더욱 통달하고 안정하며 풍화를 락하야 엇지 석일노비기리오그
련도의 순회함을 찬탄하고 기리쳐져 상상이러니 점점가가이다 다라 일쌍명목으로 속시
양구에 하리다려 왈져 립목의 인척이잇스니 보라 한디하리 청령하고 두로츠조서저를보
고 괴이히녀겨 문왈엇던 상공이 쉰것천속에 안저게시니 잇고 소져부담하니 시저회
보왈 립중에 한서성이잇스되 의표비속하더이다 그디관니 추종을 머무르고 슈력에나려
림중을 헛쓸고보니 과연 일위옥인이 독입하얏스니 그 광채일좌옥류이만방을 밝히는영
롱비범하고 서괴이이하니 어디더고으며 무어시밧나다 하리오머리에 쇼요관을 삼고
봉익의 빅스포를 가하고 섬스제료의 제포티를 두르고 반죽션을 드렸스니 봉형난절이며
옥골선풍이 청쇄탁속하고 포연이 우화할듯청향이이이하고 상은니 몽롱하야 청스를저
고동정호를지나난듯성난하느왕조진이라 일견에티경하고 지견의 변연경동하야 흠신
문왈선성은어디로 좃츠님하스진로속인을놀니시나 쇼감히 못잡나니 존성디명을듯고
조호노라하랑이이러답례하고 공슈왈쇼성은하방거저러니 주척이업셔 방황하미잠간

피서하다가 귀인을 만난나이다 귀인은 뒤시원되나 의게 무르시나 잇가 개인왈선성은진
짓옥인군조로다사하지너기형제라하스니 문인즉서로바리지아나리니 선성은더럽다
아니실진된루스에강골하스도용이말슴함이엇더하노로중에지류함이어려오니 폐스
에굴하심을청하나이다 하성이싱각하되저는놀를모로나너님의 허신한사람이라 힘의
업스리라하고 스왈소성은무가직으로다른디 주척이업스니 존명을밧들이이다 상서크
게깃거한가저로본부에너르니 문정이화려한디 계슈를놓히세웠더라 당에올나 좌정하
미성명과본향을못거늘디 왈하성은하 주선비오성명은하 저옥이라 세상아른지 십륙년
이니과업을위하야 불원천리하고경스에너르나라 향한스로성중에천하니 업스니 처음
으로밧쳐주인을정치못하고우연이피서하노라 립하에쇼요하더니 귀인의 접디를남스
오니감스하와다 못잡나니 높흔성회를청하나이다 기인니 소왈물낫더니라 향한스랏다
소져의 천한성명은진제빅이라형부상셔동평장스를하얏고 금년십팔이라또한 못잡나
니구경지하야 안행이멧치나하노하씨추연왈명되구하디부모동귀를유시에실산하
고라향에류락하니 신세의슬푸미이 밧게업도소이다 상셔차탄왈군의명세늘과갓도다
과일이불원하얏스니 이곳에유함이하야오성이스왈후의감격하니부러청치못할지언
정엇지스양하리오상셔깃거주찬을나와권한디하씨님의화식을받쳤는지라 불털하나
브득이하저하고셔로고금을논논하니호치스이에봉음이낭낭하야강하를드리온듯단
알정속하야그모를글리업고보지아닌거시업셔그신기함이만고에당하리업는지라진